

의정부소방서,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운영

기사입력 2024-02-08 15:58:25



의정부소방서 전경/사진:의정부소방서 제공

[대한경제=최종복 기자] 경기 의정부소방서(서장 유해공)는 문화재 방재의 날(2.10.)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'문화재 화재안전주간'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문화재 방재의 날은 문화재보호법 제 85조에 따라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고 안전관리 의식함양을 위해 송례문 화재(2008.2.10.)를 계기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, '문화재 화재안전주간'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등 유사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민과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이에 의정부소방서는 관내 총 5곳"지정문화재(4), 미술관(1)"을 대상으로 △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행정지도 △'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' △대면 또는 비대면 문화재 현지 적응훈련 △관계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등 화재안전관리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.

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"문화재 화재안전주간 기간 운영을 통해 문화재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전했다.

의정부=최종복 기자 bok70000@

<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>



정치사회부

최종복 기자

bok70000@naver.com

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
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

